서울주보의 진화 어디까지 인가?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가난한 사람은 우리 교회의 보물이다." 돌아가신 바오로 6세 교황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되새길수록 깊이 반성되고 묵상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버림받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성녀라고 칭송을 받은 데레사 수녀님은 모든 이들의 희망이었고, 대다수 국민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인도에서 조차 성인처럼 우러름을 받으셨습니다. 가난과 고통에 짓눌린 이들을 위해 한 생을 오롯이 바친 마더 데레사 수녀님! 죽어가는 환자와 가난한 이들을 보살핀 탓에 등은 활처럼 휘었지만, 심장병으로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버림받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사후 5년이 지나야 시복시성절차를 추진하는 관례를 깨고 마더 데레사 수녀 선종 6년 만인 2003년 10월 19일 그녀를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기쁜 이웃, 따뜻한 나눔

서울주보를 사랑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주보 2000호 발행을 기념하여,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실천할 새 코너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을 기획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매달 한 번씩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교우를 소개하고, 교우들의 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삶이 각박해져 나눔이 줄어드는 요즘, 서울주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이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 홍보국장 허영엽 신부 –

첫 번째 이웃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 2월 4일 오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김성호 신부) 산하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김화영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 마리아(72세, 명동본당) 자매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언제 지어졌는지 지붕조차 온전치 않아 천막을 두른 허술한 집에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매님과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석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까지 아파졌습니다. 자매님께 괜찮으신지 여쭤보니 "난 종일 있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문 좀 열어놔야겠네." 하십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아, 10년이 지난 석유 난로와 동사무소에서 기증받은 작은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석유통들이 즐비하여 행여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LPG 가스통에 가스레인지와 화장실 온수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이 온수기 조차 고장이 나서 현재는 따뜻한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목욕을 할 수가 없어서 목욕탕에 갔지만, 목욕탕 주인은 몸이 성치 않은 자매님이 행여 다칠세라 손사래를 치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사는 집은 자매님의 친구 집이었는데, 친구분은 돌아가시고, 그분 아들이 계속 살도록 배려해주어 20여 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일찍이 알코올 의존증이었던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식당일을 하며 아들과 두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생이던 아들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정신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아들의 증세로 가족은 와해되고,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은 두 딸은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계속된 약물치료로 현재 아들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자매님이 뇌병변장애를 얻게 되면서 거동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배달 국가에서 지원하는 60여 만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한 달 석유값만도 20만 원, 거기에 병원비, 전기세, 식비 등 생활비를 쓰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상 위험한 집이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 이사는 꿈도 못 꿉니다. 그렇지만 자매님은 본당 공동체의 기도와 가정방문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며 굳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을 후원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드리자 오히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라고 말하는 자매님을 보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년 전 잠시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온전치 못한 아들 걱정에 쉽게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는 자매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선 레지나 | 홍보국 편집디자인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2-18050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5년 3월1일~20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 첫번째 이웃 '이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 쓰여집니다. 교우 여러분이 이 마리아 자매님을 후원하여 지원된 내용은 5월24일자 서울주보를 통해 안내합니다.

- 후원대상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각 위원회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약 26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받은 교우 중에서 선정합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 소득공제용 납부영수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요청)
- 문의: 727-2457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상미, 727-2004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김지선

6 서울주보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그분의 행보에 감동을 받았죠. 직접 써주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서울대교구가 서울의 누룩이 되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과 봉사에 전념하라는 부탁입니다. 그 후에 우리 교구는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교황님의 말씀을